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409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 분석

Analytical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xual Violence Among Athletes

조욱연
국민대학교

Woogyeon Jo(woogijo@kookmi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부 성폭력 실태 분석을 통하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는 2010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초·중·고 및 대학·일반 운동선수와 지도자 및 학부모 등 총 2,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최근 1년간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였고, 둘째, 운동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대한 예방실태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실태를 통하여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동부 성폭력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단체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심어 : | 성폭력 | 운동선수 | 예방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athletes' experiences on sexual violence in sports. To achieve this purpose, all athletes except professionals, coaches, athlete's parents were targeted and finally a total of 2,041 respondents were selected. The main topic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e actual condition of sexual harassment among athletes. Second, athlete's attitude on sexual violence was identified. Last,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as examined.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to build up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solution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must be multifaceted, including all stockholders.

■ keyword : | Sexual Violence | Athletes | Prevention |

I. 서 론

최근 수년간 언론 보도나 각종 실태조사를 통해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스포츠 현장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스포츠의 외형적 성장만을 중요시한 체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인권유린에 제대로 된 관심과 처방을 내리지 못한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치부가 드러

* 본 연구는 대한체육회 용역과제로 수행된 「2010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의 결과를 발췌하여 정리 및 보완하였음.
접수번호 : #121031-001
접수일자 : 2012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2월 05일
교신저자 : 조욱연, e-mail : woogijo@kookmin.ac.kr

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선수 관련 폭력은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제대로 그 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1][7], 또한 남성중심주의 운동부 문화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6][14]. 이는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환경 속에서 실시되는 스포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체육계의 자정노력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야기하기에 충분할 것이다[12].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인 손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로 변화되어 한 개인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21]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성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성적 충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나 권력의 불균형에서 기인하기 때문에[8],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15].

이러한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자나 관계자들 역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여 왔다는 점에서[12], 운동부 내에서의 성폭력은 고착화된 운동부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20]. 이는 스포츠의 특성상 신체 접촉의 정도와 경계가 모호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운동부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22]. 대표적인 예로는 강간만이 성폭행이며, 성폭력을 유발한 피해자의 행동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더욱 비난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10]. 따라서 운동부 관련 당사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운동선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숙한 운동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성숙한 운동부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하여 학생선수 폭력 예방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6월 '학교체육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및 개선에 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지도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크고 작은 선수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온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통해 사태해결책을 제시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3].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를 통해서 파생된 결과로 인해 운동부 성폭력 해결책은 신고센터 설치나 선수 접촉, 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등 행정이나 조직 설치에 등 외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측면들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폐지되거나 조직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차원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1].

물론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운동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접촉이 빈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장거리 원정경기, 합숙훈련, 대회 및 시합 등을 통해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9]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운동부내 성폭력 피해율이 16.1%이며 학생선수의 성폭력 경험은 3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성폭력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단순한 역학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학교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17]. 성폭력 문제는 단순히 운동부 내의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사회분야에서 젠더 관계 유형의 맥락을 이해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4][18].

최근 들어 이러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1]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 지도자의 인식을 통해 성폭력을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연구[16],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운동선수를 상대로 운동부내 실태 성폭력 실태 및 분석을 실시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한 연구[14],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이 선수들의 무력

함 및 대인관계문제와 운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3] 등이 실시되어 운동선수 성폭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동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대규모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한 실정인데[5], 이러한 기초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동선수 관련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동부 성폭력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대규모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세 분야를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분야로 한정하여 결과를 제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성추행'과 '강간' 관련 데이터가 협소해서 학술적인 자료로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가 '성추행'과 '강간'을 포함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이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성희롱'의 협소한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행해진 대부분의 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가 과거의 최근 폭력의 구분 없이 포괄적인 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착안하여[1], 기억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의 성폭력 경험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용어와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의 포괄적인 측면은 훼손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해보고, 둘째,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통해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운동부 내에서 행해지고 운동부 예방 실태를 통해 운동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0년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국 초·중·고 및 대학·일반 운동선수와 지도자 및 학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운동선수의 경우 대한체육회 종목별 선수등록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유층집락 무선표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지도자 및 학부모의 경우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종목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으로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종목은 육상, 수영, 양궁, 체조, 레슬링,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고, 단체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세팍타크로, 수구 등 7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선수 1,830명, 지도자 210명, 학부모 110명 등 총 2,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한 총 2,041명(운동선수 1,734명, 지도자 202명, 학부모 105명)의 설문지가 조사되었다. 운동선수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운동선수 표본의 특성

구분	항목	사례수(명)	백분율(%)	계(명)
성별	남자	1,215	70.1	1,734
	여자	519	29.9	
지역별	수도권	710	40.9	1,734
	중부권	265	15.3	
	영남권	349	20.1	
	영동권	135	7.8	
	호남권	275	15.9	
학교급별	초등학교	439	25.3	1,734
	중학교	552	31.8	
	고등학교	400	23.1	
	대학 및 일반	343	19.8	
종목별	개인종목	958	56.8	1,734
	단체종목	776	43.2	
운동기간	2년 미만	450	26.0	1,734
	2-5년 미만	529	30.5	
	5-8년 미만	363	20.9	
	8년 이상	392	22.6	

2. 조사도구

본 설문지는 연속적인 자료 산출을 위하여 2005년 선수폭력실태조사의 설문지 틀을 유지하였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성폭력 실태에 파악에 필요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설문지의 주요 구성은 성폭력 실태,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 성폭력 예방 실태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성된 설문지는 문항의 완성도와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관련 전문가 및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조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대상자들이 속한 학교나 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를 조사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수거하여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3차에 걸친 검색과정을 거쳐 제외시켜, 신뢰성이 검증된 설문지만을 코딩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였다. 입력이 완료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과 SPSS(Versio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측치와 이탈치(Outlier)를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최종으로 수집된 설문지 자료의 항목별 단순 빈도표와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운동선수 성폭력 실태

1.1 성폭력 피해 경험

최근 1년 동안의 성희롱 피해는 [표 2]과 같으며, 전체 운동선수 중 26.4%가 경험하였으며, 성별로는 전체 남자 운동선수의 24.9%, 여자 운동선수의 29.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개인종목이 27.9%, 단체종목이 24.5%로 나타났다.

표 2. 성폭력 피해 경험(성별, 종목별) **단위: %**

구분	남	여	개인종목	단체종목	전체	성폭력전체
성희롱	24.9	29.8	27.9	24.6	26.4	26.6
성추행/강간	1.0	1.9	1.1	1.5	1.3	

1.2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최근 1년 동안의 성희롱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표 3]과 같이 전체 피해자(복수응답)의 62.9%가 '지도자(코치 및 감독)'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31.1%가 '선배 선수', 10.6%가 '동료 선수'라고 응답하였다. 1년 동안 성희롱 피해를 당한 평균 횟수는 5.69회로 조사되었다.

표 3. 성폭력 가해자 실태 **단위: %**

구분	지도자	동료	선배	기타	피회횟수
비율	62.9	10.6	31.1	2.3	5.69회

1.3 성폭력(성희롱) 경험 후 피해 유형

성희롱 경험 이후 피해에 대한 질문에 [표 4]와 같이 '아무런 피해증상이 없었다'가 44.7%, '운동하기가 싫어졌다'가 26.8%, '불안이나 짜증, 우울, 불면증 등의 심리적 변화'가 24.6%,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다'가 3.1%, '주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가 1.3%, '통증(두통, 근육통, 배아픔 등)'이 0.9%, 기타 3.5%로 나타났다. 응답률이 높은 상위 3가지 피해유형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심리적 변화(불안, 짜증, 우울, 불면증)'을 선택한 전체 남자, 여자 운동선수는 각각 16.8%, 39.2%가 응답하였다. '운동하기 싫어졌다'의 경우 각각 29.5%, 21.5%로 나타났으며, '아무런 피해증상이 없었다'의 경우 각각 49.0%, 36.7%로 나타났다.

표 4. 성폭력 피해 후 피해 유형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신체 통증	0.7	1.3	0.9
심리적 변화	16.8	39.2	24.6
학교에 가기 싫음	2.0	5.1	3.1
공부가 되지 않음	1.3	0.0	0.9
운동하기 싫어짐	29.5	21.5	26.8
주위 사람과의 관계 소원해짐	0.7	2.5	1.3
아무런 피해증상 없음	49.0	36.7	44.7
기타	2.7	5.1	3.5

2.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

2.1 성폭력(성희롱) 경험 시 대처 방법

[표 5]와 같이 전체 응답자(복수응답)의 56.4%가 '당

황(혹은 무서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함'이라고 답했으며, 24.0%가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16.0%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 4.0%가 '상대방에게 똑같은 행동을 함', 3.1%가 '소리를 지름', 0.4%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을 선택하였다.

표 5. 성폭력 경험 시 대처 방법 단위: %

구분	남	여	전체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	17.6	36.4	24.0
당황해서 아무런 행동을 못함	58.8	51.9	56.4
싫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요구	16.9	14.3	16.0
상대방에게 똑같은 행동을 함	5.4	1.3	4.0
소리를 지름	2.0	5.2	3.1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0.7	0.0	0.4
기타	4.1	0.0	2.7

2.2 성폭력(성희롱) 경험 후 도움 요청

[표 6]와 같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5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혹은 선후배(22%)', '부모나 가족(18.5%)', '운동부 지도자(1.9%)', '학교 선생님(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성폭력 경험 후 도움 요청 단위: %

구분	전체
부모나 가족	18.5
친구 혹은 선후배	22.0
운동부 지도자(감독 혹은 코치)	1.9
학교 선생님(양호, 상담, 담임 등)	1.6
전문상담소에 상담	0.3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52.7
기타	5.1

2.3 성폭력(성희롱) 경험 후 도움 미요청 이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표 7]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60.1%가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서(17.4%)', '나의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8.7%)',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4.3%)'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4.3%)'가 그 뒤를 이었다.

표 7. 성폭력 경험 후 도움 미요청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60.1
가해자를 용서했기 때문	2.2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방법을 몰라서	4.3
주위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서	2.2
부끄러워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4.3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	8.7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6.5
협박 보복이 두려워서	17.4
기타	2.9

3. 성폭력 예방 실태

3.1 성폭력 담당기관 유무

학교 및 소속팀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곳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운동선수의 경우 전체의 11.4%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없다'가 36.2%, '모른다'가 52.5%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경우 '있다'가 36.7%, '없다'가 21.8%, '모른다'가 41.5%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 '있다'가 27.2%, '없다'가 28.2%, '모른다'가 44.7%로 나타났다.

표 8. 학교 내 성폭력 담당 기관 단위: %

구분	선수	지도자	학부모
있다	11.4	36.7	27.2
없다	36.2	21.8	28.2
모른다	52.5	41.5	44.7

3.2 성폭력 예방 법 대처법 숙지 여부

성폭력의 예방법 혹은 대처법에 대해 [표 9]와 같이 운동선수의 37.2%가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알고 있다'는 62.8%로 나타났다. 지도자의 경우 '전혀 모른다'가 20.2%, '알고 있다'가 79.8%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 '전혀 모른다'가 32.7%, '알고 있다'가 67.3%로 나타났다. 즉, 운동선수 10명 중 약 4명, 지도자 10명 중 약 2명, 학부모 10명 중 약 3명이 성폭력 예방법 혹은 대처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체계적인 성폭력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폭력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성폭력 예방법(대처법) 숙지 여부 단위: %

구분	선수	지도자	학부모
전혀 모름	37.2	20.2	32.7
알고 있음	62.8	79.8	67.3

3.3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여부(지도자, 학부모)

선수들이나 자녀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험은 [표 10]과 같이 지도자의 73.7%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26.3%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49.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50.5%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지도자, 학부모) 단위: %

구분	지도자	학부모
있음	73.7	49.5
없음	26.3	50.5

V. 논의

현재 운동부 내의 성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종의 학습효과를 재생산하며 점차 운동부의 하위문화로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학교 운동부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정상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선결조건일 것이다. 따라서 운동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운동부에 내재되어 있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첫째, 성폭력 실태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보자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운동선수의 성희롱 가해자는(복수 응답) 전체 피해자의 62.9%가 '지도자(코치 및 감독)'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동부 내 성희롱 문제는 훈련 도중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이나 전지훈련 등으로 집을 떠나 지도자와 선수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지배하에 운동부가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재발 빈도는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운동선수들을 보호하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목 할 사실은 성희롱 및 성추행의 주요 가해자는(복수응답) '지도자(코치 및 감독)'로 나타났지만, '동료 선수 혹은 선배선수'에 의한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여성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자 운동선수 역시 성희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시 여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남자 운동선수들을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 경험 후 피해 유형으로는(복수응답) '아무런 피해증상이 없었다'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동하기 싫어졌다'가 26.8%, '심리적 변화(불안, 짜증, 우울, 불면증)'가 24.6%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운동선수도 있는 반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운동선수가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성희롱 피해 후 '운동하기 싫어졌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살펴보면, 성희롱 피해 경험 후 52.7%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희롱 피해 당시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대처 방식으로 인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운동부 내에서 성희롱이 재발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이기 보다는 감추고 숨겨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게 되어 지속적으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2.0%, '부모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8.5%로 나타났고 '운동부 지도자(감독 및 코치)'에게는 1.9%만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 혹은 선후배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성희롱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 경험 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

하지 않았던 52.7%의 운동선수 중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60.1%가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6.1%가 '협박,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나의 운동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서'라고 응답하였다.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도움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염려되어 성희롱 피해 자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운동선수들에게 교육시키고,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선수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성폭력 예방 실태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운동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 모두 학교 및 소속팀 내에서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성폭력의 예방법 혹은 대처법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인식부족이 운동부 주체들의 성폭력 예방 인식 및 부재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신설하고 선수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 및 선전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도자의 73.7%, 학부모의 49.5%가 선수들이나 자녀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부모 두 명 중 한 명은 자녀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학부모가 성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증된 기관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실태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및 태도를 살펴보고 예방실태를 통하여 운동선수 관련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동료선수나 선배선수도 포함되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남자 선수 또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부에 관련된 모든 선수나 지도자들이 잠재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의 피해에 대해 많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이 제일 높고, 그 이유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거나 협박보복이 두려워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성폭력 담당기관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고 대처방법에 대한 숙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선수들에게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지도자와 학부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운동부 관련 주체들의 운동부 성폭력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선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고 운동선수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운동선수 성폭력을 조장하는 학교 및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그리고 유관 단체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권순용, 나영일, 박일혁, 권성호, 조욱연, 김종호, 주종미, "운동선수 구타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50권, 제6호, pp.91-102, 2011.

[2] 김미화, *성폭력 대응을 위한 의료적-법적 가이드라인,* 서울: 들샘, 2007.

[3] 김영미,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 실태 조사 및 성폭력 경험과 운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5호, pp.75-92, 2009.

[4] 김재엽, 이근영, "청소년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 경험에 따른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16권, 제2호, pp.247-271, 1998.

[5] 김창군, 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권, pp.173-198, 2010.

[6] 남상우, 이석호, 여정권, 박창선,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인식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pp.117-127, 2007.

[7] 남중웅,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 제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368-377, 2012.

[8] 문용린, 임재연, 이유미, 강주현, 김태희, 김충식 외,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8.

[9]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스포츠팀과 직장운동부의 여성선수 권익실태조사, 2007.

[10] 박옥임, 도미향, 류도희, 박애선, 백경숙, 성정현 외, *성폭력 전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11] 변혜정, "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성적 건강권", 여성건강, 제1권, 제2호, pp.117-137, 2000.

[12] 이성은, 이명선, 변혜정, 김상범,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폭력-성폭력의 인권 침해 발생구조에 대한 성 정치학적 분석", 한국여성학회지, 제25권, 제1호, pp.35-66, 2009.

[13] 조현빈,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권, 제2호, pp.39-59, 2006.

[14] 주종미, "운동부 내 성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3호, pp.219-244, 2008.

[15] 허현미, "엘리트 남녀선수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28권, 제2호, pp.75-107. 2011.

[16] 허현미, 황정임, 선보영, "여성선수 성폭력에 대한 여성지도자의 인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1권, 제2호, pp.401-421, 2008.

[17] C. H. Brackenridge and K. Fasting,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olicy Perspectives, Whiting & Birch Ltd, 2002.

[18] J. Coakley, Sports in Society. Boston: McGrawHill, 2007.

[19] C. Hassall, L. H. Johnston, J. D. Bringer, and C. H. Brackenridge, "Attitude towards Sexual Harassment: Coach and Athlete Perceptions of Ambiguous Behaviours,"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28, No.2, pp.1-21, 2002.

[20] L. Kirby, K, Greaves, and O. Hankivsky, The Dome of Silence: Sexual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Ontario: Fernwood, 2000.

[21] D. Lackey, "Sexual Harassment in Sports," The Physical Educator, Vol.47, No.2, pp.22-26, 1990.

[22] N. J. Toftegård, "The Forbidden Zone: Intimacy, Sexual Relations and Miscondu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Vol.36, pp.165-183, 2001.

저 자 소 개

조 욱 연(Woogyeon Jo)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사졸업
- 2012년 9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체육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 복지 및 정책, 스포츠 사회학